

지토세 벚나무 비석

에도 시대, 도야마 제10대 번주 마에다 토시아스가 여섯째 아들 토시토모에게 지위를 양위한 뒤, 가에이 2년(1849) 5월 28일 히가 시데마루(지금의 사쿠라기초 일대)에 새로이 지토세고텐을 축성하였다.

토시아스는 지토세고텐으로 옮겨 벚나무를 많이 심어 풍치를 더하였으므로 이를 지토세 벚나무라고 하였다.

후대에 벚나무가 노쇠하자 쇼와 9년(1934) 후가카이(風雅會)가 35주년을 기념하여 이 비석을 세우고 새로 마쓰카와 강 제방에 벚나무를 심었으며 현내에서도 유수의 벚꽃 명소가 되었다.

마쓰카와의 천년 소나무와 같이 그 이름을 ‘천세의 벚꽃’이라 명하였도다 제방의 벚꽃은 오래도록 피어나리라
다무라 나모키

1985년 도야마시